

영광굴비·보성녹차 결합 신제품 개발

영광군·보성군 MOU 체결

대표 특산물 콜라보 식품 개발

녹차굴비·녹차소금 등 상품 준비

영광군과 보성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광굴비와 보성녹차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손을 잡았다.

27일 영광군과 보성군에 따르면 김준성 영광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 서재창 영광수협 조합장, 박동호 보성차생산자 조합장이 영광군청에서 신제품 개발 및 유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영광굴비와 영광천일염, 보성녹차 등을 결합한 식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제품으로는 녹차굴비, 녹차소금, 녹차굴비장아찌, 녹차유를 이용한 굴비튀김 등으로 혼합육 등이 늘어난 소비 트렌드에 맞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조리형 제품을 중심으로 기호도가 높은 결합형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영광군과 보성군은 앞으로 신제품 개발과 유통에 관한 지원을 받고, 영광수협은 수산물 구입과 녹차굴비, 녹차소금 등 신제품을 유통·판매한다. 보성차생산조합은 녹차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제품 판로 확보, 품질관리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보성군은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녹차굴비, 녹차소금 등에 쓰일 녹차 추출물 효능 검증에 마친 상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양 지자체가 협력해 기존



영광군과 보성군은 27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굴비와 보성녹차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청 제공>

굴비뿐만 아니라 녹차를 활용한 가공제품을 신속히 개발해 전국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며 "신제품 개발 및 유통 확대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영광군과 보성군의 대표 특산품을 가지고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보성녹차와 영광굴비가 합작해 더 큰 시너지를 내 상생과 협력

의 성공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과 보성군이 공동 개발하는 신제품은 오는 7월 중 출시 기념식을 열고, 지역 축제와 박람회 등을 비롯한 SNS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일련에 공개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7개 국어 소통보드' 외국인 민원 '효과 만점'

영암 삼호지구대 박정혜 순경 제작

다양한 국적 외국인 대응 큰 도움

영암의 한 외사경찰이 외국인 사건 초동수사와 민원 해결을 위해 제작한 '7개 국어 의사소통 보드'가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삼호지구대 박정혜(여·29) 순경이 '7개 국어 의사소통 보드'를 제작, 외국인 민원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삼호지구대 관내에는 외국인이 7000여명 거주, 전남지역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불공단 내 선박블럭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사건·사고도 늘어 이들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가 다양한 탓에 현장 경찰관들과의 의사소통에 원활하지 않아 외국인 민원인과 경찰관 모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암경찰서는 이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외사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박 순경을 전문성을 살려 삼호지구대에 전라적으로 배치했다.

박 순경은 외국인과 마주치는 현장에서 주로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박정혜 순경이 7개 국어 의사소통 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용하는 경찰 관련 질문과 용어를 분석,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베트남어·우즈베크어 등 7개 국어 의사소통 보드'를 만들었다.

박 순경은 "삼호지구는 전남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탓에 언어도 다양한 의사소통의 한계로 초동수사와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다서 착안해 '외국어 의사소통 보드'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영암=전통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무안신안축협, 장학금 3000만원 기탁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지난 25일 신안군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3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지난 2016년부터 장학기금을 기탁했으며 지금까지 총 9504만원을 신안군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앞서 지난 19일 무안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백미(10kg) 1000포를 무안군에 기탁했다.

문만식 조합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씨푸드 '수산식품 수출상표대전' 장관상

신안지역 수산식품 제조업체 ㈜신안씨푸드는 최근 '2020년 수산식품지원 수출상표대전'에서 금상을 수상,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상표대전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가공수출업체의 우수한 제품 발굴 및 홍보 지원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수출 지원 사업이다. 신안씨푸드는 이번 대전에서 '코리아 팝 김(Korea Pop Gim)'을 출품, 타 제품과의 차별화와 세계시장에 한국의 맛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1956년 목포에서 창업한 신안씨푸드는 2010년 신안군 압해를 북동리로 이전했다. 위생시설인 '해섭(Haccp)'과 '품질경영시스템(FSSC 22000)'을 기반으로 전자동 시스템을 갖추고 신



박성수 대표

안지역의 질 좋은 물건을 원료로 김자반, 조미김, 식탁김, 도시락김 등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있다.

특히 자사 제품으로 코리 아팝김 오리지널, 불닭맛, 치즈맛, 마라맛 복분자김 등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연구해 생산·판매한다. 50여

명의 직원이 지난해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성수 대표는 "한국의 맛을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국내 유명 셰프들의 자문을 받아 더 좋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기독병원 3회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목포기독병원은 산재보험 재할인증의료기관 인증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을 3회 연속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는 국제수준의 평가를 통해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증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 4개 영역 520개 조사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철저한 실사와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목포기독병원은 인증평가 준비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 각종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각종 시설관리를 중심으로 안전한 병원을 위해 집중 투자했다. 또 인증준비 기간동안 수차례 자체평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 간으로, 3회 연속 획득한 목포기독병원은 오는 2024년 9월 1일까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진도군은 올 상반기 중 조도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외병도와 청도도 등 2곳에 추가 건설한다. <진도군 제공>

진도 조도에 닥터헬기 이·착륙장 2곳 추가 건설

진도군은 섬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2곳을 올 상반기까지 추가 건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도면 외병도와 청도도에 건설되는 닥터헬기장은 4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닥터헬기장은 응급환자와 인명·재산피해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 접근성 향상과 항공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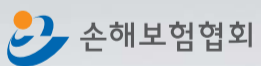
특히 의료 취약 섬지역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다.

진도군은 헬기 이·착륙장 사업을 지난 2012년 조

도면 장유리를 시작으로 관매도, 내병도, 맹골도, 가사도, 대마도, 관사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성남도, 나배도, 옥도까지 12곳에 건설했다. 진도지역 섬 중 100인 이상 거주 섬에는 모두 설치됐으며, 앞으로 5년 이내에 1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닥터헬기는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